



#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경찰응원 영상메시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일시 : 2020-12-08 10:24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가 지난 5일 '제1회 경찰응원 영상메시지 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가 지난 5일 '제1회 경찰응원 영상메시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속에서 고생하는 경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경찰 응원 영상메시지'를 주제로 실시됐다.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고교생 100여명이 글, 그림, 노래 개사, 경찰서 방문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응원 영상메시지를 제작해 참가했다.

심사 결과 '경찰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시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수호 천사'라는 주제로 영상메시지를 제작한 대구서부고등학교 이다영 학생(3학년)이 금상(상금 30만원)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서울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윤예희 학생(2학년)이 은상, 영송여자고등학교 김가연 학생(1학년)이 동상을 차지한데 이어 10편의 작품이 입선에 선정돼 상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계명문화대는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 이외에도 경찰행정과 진학 시 수업료 감면(금상 80%, 은상 50%, 동상 30%)과 참가자 전원에게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전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응원메시지는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 탑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금상을 수상한 이다영 학생은 "공모전 참여를 통해 경찰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어릴 때부터 품어온 경찰의 꿈이 더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는 매년 10명 이상 경찰합격자를 배출해 전국 전문대학 중 경찰공무원 최다 합격을 자랑하는 경찰공무원 양성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jrpark69@naver.com